숫자로 돌아본 2017 KIA

‘호랑이 군단’에게는 최고의 한가위였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3일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kt 위즈와의 원정경기를 10-2 승리로 장식하고 2017 정규시즌 우승팀이 됐다. 가슴 졸이는 후반기를 보냈던 선수들은 챔피언이 되어 추석 당일이었던 4일과 5일 꿀 같은 휴가를 즐겼다. 포스트 시즌 대비를 위해 6일 챔피언스필드에 재소집된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정규시즌을 돌아보고 ‘가을 잔치’를 위한 워밍업을 시작했다. 8년 만의 정규시즌 우승을 이룬 KIA의 2017시즌을 놀라운 숫자로 요약해본다.

타이거즈 역대 최다 87승…선발 첫 동반 20승

KIA 타이거즈가 175일간의 1위 행진을 하며 2017 정규시즌 우승팀이 됐다. 오는 24일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 첫 포스트시즌 경기가 한국시리즈로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3일 kt 위즈와의 최종전 승리로 우승을 확정한 뒤 기뻐하는 KIA 선수단. 〈KIA 타이거즈 제공〉

김선빈 0.370 | 최형우 0.342 | 이명기 0.332 | 버나디나 0.320 | 안치홍 0.316 | 김주찬 0.309 | 나지완 0.301

7
3할 타자 7명…KBO 역대 최다

KBO 역대 최다인 7명의 3할 타자.

거침없던 전반기에 무시무시한 타선이 있었다. 복덩이가 된 ‘이적생’ 이명기를 시작으로 9번 김선빈까지 쉬어갈 틈 없는 타선을 구축하며 화끈한 공격 야구를 전개했다.

정규시즌 최종전날 나지완이 자신의 개인 역대 최다 홈런인 27호포를 쏘아 올리는 등 0.301의 타율로 3할 막차를 타면서, 타격왕 김선빈을 시작으로 최형우(0.342), 이명기(0.332), 로저 버나디나(0.320), 안치홍(0.316), 김주찬(0.309)까지 7명이 3할 타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삼성과 두산이 기록한 6명을 넘어선 KBO리그 역대 최다 신기록이다.

“마지막 5경기 정도 남았을 때 타격 1위가 신경 쓰였다. 그때부터 타격이 좋지 못했다”고 쑥스럽게 웃은 김선빈은 최종전에서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두산 베어스 박건우(0.366)와 NC 다이노스 박민우(0.363)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1994년 이종범 이후 23년 만에 유격수 타격왕에 등극했다. 사상 첫 9번타자 타격왕이라는 타이틀도 차지했다.

‘캡틴’ 김주찬은 1할 타자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며 우승의 현장에서 환하게 웃었다.

헥터

양현종

20
헥터·양현종 32년 만에 동반 20승

헥터와 양현종, 두 명의 20승 투수가 이끈 우승. 헥터로 시작해 헥터로 끝난 KIA의 우승 행보였다. 헥터는 3월 31일 삼성과의 2017시즌 개막전에서 7-2 경기의 승리투수로 포효를 시작했다. 헥터의 승리 행진은 지난 시즌 1승 포함 15경기까지 이어졌다. 외국인선수 선발 최다 연승 신기록이자 개막 이후 선발 최다 연승(14승)타이 기록을 이룬 헥터는 자신의 시즌 마지막 등판날이자, 팀의 우승이 걸려있던 3일 kt전에서 10-2 승리를 이끌면서 20승 고지에 올랐다.

또한 헥터는 이날 7회까지 소화하면서 201.2이닝으로 올 시즌 유일하게 200이닝을 넘긴 투수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0이닝이라는 ‘책임감’을 보였다. 헥터는 “20승은 목표가 아니었다. 200이닝을 목표로 했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서 의미 있는 시즌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앞선 2일에는 양현종이 20승에 성공하면서 1995년 이상훈(당시 LG) 이후 22년 만에 토종 선발 20승이 기록됐다. 양현종에 이어 헥터까지 20승 반열에 오르면서 1985년 김일융과 김시진(당시 삼성)에 이어 32년 만에 동반 20승 기록이 작성됐다.

87
타이거즈 역대 최다승

타이거즈의 역사를 바꾼 87승.

9월 23일 kt와의 홈경기 선발로 출격한 임기영이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6월 7일 한화전 완봉승 이후 폐렴과 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임기영은 김선빈의 결승 투런과 버나디나의 연타석 홈런에 힘입어 108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이날 경기가 8-3으로 끝나면서 임기영의 8승과 함께 팀의 82승이 기록됐다. 82승은 앞선 1993년과 2009년에 기록된 타이거즈 역대 최다승인 81승을 넘어선 신기록이었다.

그리고 이후 kt전 최종전까지 5승을 보탠 KIA는 팀 역대 최다승 기록을 87승까지 늘리며 챔피언으로 2017 정규시즌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87승에는 최형우 연타석 투런포와 끝내기포, 4번의 만루 찬스 끝에 이룬 최원준의 ‘3전 4기’ 끝내기 만루포, 버나디나의 한국 무대 첫 끝내기 안타이자 시즌 첫 끝내기 3루타, 임기영의 두 번의 완봉승과 9년 만에 이룬 정용운의 선발승, 이민우의 데뷔전 선발승 등이 담겨있다.

175
175일간 1위…KBO 역대 최장

175일간 지켜낸 1위의 자리.

KIA는 개막 후 10번째 경기를 치렀던 4월 12일 두산을 상대로 8-4 승리를 거두면서 롯데 자이언츠, kt와 공동 1위에 올랐다. 그리고 4월 14일 연승 행진 속에 KIA는 단독 1위로 치고 올랐다.

변동 많은 시즌 초반이라 KIA의 1위 독주를 예상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승 후보 1순위였던 두산이 좀처럼 페이스를 찾지 못하는 사이 KIA는 NC와 2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반기 1위 싸움을 펼쳤다.

NC(6월25~28일), 두산(9월24~25일)에 잠시 공동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4월 12일 이후 단 한 번도 선두 자리에서 내려온 적은 없었다.

정규시즌이 끝난 3일까지 KIA는 175일간의 1위 행진을 펼쳤다. 2010년 SK 와이번스가 162일 동안 1위를 유지했던 기록보다 더 오랜 시간 정상을 지키면서 달성한 1위. 위기는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챔피언, KIA다.

1024830
사상 첫 홈 100만 관중 돌파

1위 팀의 10번 타자가 작성한 ‘100만 관중’.

9월 23일 kt 위즈와의 경기를 보기 위해 챔피언스필드에 1만2056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이날 누적관중이 100만346명이 되면서 100만 관중이라는 기록이 작성됐다. 비수도권 구단의 100만 관중 돌파는 롯데(1991년 등 8차례)에 이어 두 번째다. 롯데가 인구 348만명의 부산을 연고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147만 도시 광주에서 기록된 100만 관중은 경이롭다.

지난해 77만3499명으로 최다 관중을 기록을 새로 썼던 KIA는 8월 15일 NC전에서 이를 경신한 뒤, 100만 관중까지 돌파했다.

그리고 안방에서의 마지막 경기였던 9월 26일 LG전에 1만1894명이 찾으면서 올 시즌 KIA의 2017시즌 총 관중은 102만4830명이 됐다. 평균 관중은 지난해 1만743명을 훨씬 뛰어넘은 1만4234명이 됐다.

1554
시즌 최다 안타…삼성 1515개 경신

7명의 3할 타자들이 합작한 1554개의 안타.

KIA는 6월 2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 11-4 승리를 시작으로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을 시작했다. KBO리그 역대 최다인 4경기를 넘긴 KIA는 메이저리그의 역대 기록인 6경기까지 넘어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기간 KIA 타자들은 연속 타자 및 타수 안타 신기록(11타자 및 타수)과 함께 팀 최다 안타(29) 타이 기록, 연속 타자 득점 신기록(12타자), 한 이닝 최다 안타 타이(8개), 연속 타자 출루 타이(12타자) 기록 등을 작성했다.

올 시즌 144경기에서 KIA 타자들이 때려낸 안타는 모두 1554개. 앞서 2003년 삼성이 가지고 있던 1515개의 최다 안타 기록을 넘어선 신기록이다. 그리고 KIA는 팀타율 0.302로 시즌을 끝냈다. 2015년 삼성이 기록한 역대 최고 팀 타율 0.302과 같지만, 모 단위까지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KIA가 0.3022, 삼성이 0.3019이 되면서, 단일 시즌 팀 타율 1위 타이틀을 가져왔다.

11
10월 24일부터 KS…V11 도전

‘V11’을 향한 마지막 여정.

KIA는 175일의 1위 질주 끝에 정규시즌 우승의 꿈을 이뤘다.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남긴 정규시즌을 넘어 또 다른 우승 고지에 오르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오는 24일 대망의 한국시리즈가 시작된다.

KIA는 최종전 이후 4·5일 휴식을 취한 뒤 지난 6일 포스트 시즌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

가볍게 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KIA는 세 차례 주·야간 연습경기를 통해서 실전 감각도 조율할 예정이다. 21일부터는 V11을 목표를 향한 합숙 훈련도 시작된다.

아직은 여유롭게 마지막 무대에서 만날 상대를 기다리고 있다.

SK 와이번스를 와일드카드전에서 제압한 NC와 정규시즌 3위 롯데 자이언츠가 맞붙은 준플레이오프는 2차전까지 진행됐다.

NC가 8일 연장 11회 혈투 끝에 9-2로 준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가져왔지만, 9일에는 롯데가 1-0 영봉승을 거두면서 1승 1패를 나눠 가졌다. 준플레이오프 3차전은 오는 11일 장소를 바꿔 마산구장에서 치러진다. 준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가 구단 역사상 최초로 홈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달 2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관중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